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제8회 광양벚꽃문화제’ 상춘객 마음 사로잡는다

###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금호동 일원서

봄을 유혹하는 벚꽃의 향연 ‘제8회 광양벚꽃문화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광양시 금호동 일원에서 펼쳐진다.

유럽풍의 주택과 잘 어우러지는 벚꽃이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전라도 시 금호동을 물들이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문화제는 보는 이의 가슴을 꽃의 향기로 가득 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호동은 3월 말부터 4월 초 만개한 벚꽃이 주택단지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며 벚꽃을 만나러오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열리는 ‘광양벚꽃문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인해 지역의 대표 꽃 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부어 찾는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광양벚꽃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금호동 백운소령 내 조각공원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행사는 상춘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MC 김두수의 진행으로

결그룹 라인업, ‘보약같은 친구’ 진시몬, ‘남자의 정’ 한태진, ‘청춘서울’ 정하윤, ‘사랑의 김치’ 송채아, ‘비람속으로’ 이예주, ‘내사랑 너머원’ 김주아, ‘좌우지간 송유나, ‘엔돌핀’ 김동규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멋진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날인 29일 오후 2시부터 대한가수협회 소속 가수들의 기획공연으로 문화제 서막을 열고 우리춤 사랑의 장구소고춤에 이어 부덕사 에어로빅팀의 에어로빅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통기타밴드 소리모아가 출연해 통기타 선율을 선보이며, 초대가수 이예주의 공연과 함께 한울림 풍물단이 모듬북과 사물놀이 협연으로 문화제 흥을 돋울 예정이다.

7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에버인드오케스트라의 정음한 오케스트라 공연과 강민구, 신옥숙, 서동진, 김주아, 결그룹 라인업, 한태진 등 초대가수 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30일 오후 2에는 벚꽃노래자랑 예선을 시작으로 오후 6시 제철선교합기도체육관의 합기

도 시범공연, 청소년댄스페스티벌이 진행된다.

7시부터 오수희 무용단의 벨리댄스가 이어지고 오승희, 추지윤, 한세희, 색소폰 신동 정은찬 김소찬, 박정현, 달팽이밴드, 송채아, 정하윤 등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셋째 날인 31일 오후 2시 대한가수협회 소속 가수들의 기획공연을 시작으로 광양시립국악단의 특별초청 공연 무대가 준비돼 있다.

이날은 ‘제8회 광양벚꽃문화제’가 개최돼 예비 가수들의 경연장이 마련되며, 송유나, 조연 정서영, 김동규, 진시몬 등 초대가수들이 출연한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아간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백운대 벚꽃길을 형형색색으로 연출해 꿈과 환상적인 풍경 속에 작은 음악회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제8회 광양벚꽃문화제’ 디지털사진촬영대회, 솜사탕, 팝콘 체험, 먹거리&체험부스 운영, 캐리커처, 볼링 만들기, 캐리커처 우드 만들기,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내달 15일까지 산림근처 소각행위 전면금지·집중단속



순천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한 달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농

부산물 태우기 등 산림근처 무단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공무원과 감시요원들의 지역책임제를 시행해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30% 피해면적의 44%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한 달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제년 방송 시스템, 가용 차량 등 방송시설을 총동원해 산불예방 방송과 주민 순회 교육을 통해 산불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향매실마을 동네방네 매화축제 개최

‘매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순천향매실마을 동네방네 매화축제’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월등면 계월리 순천향매실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천시 월등면 계월향매실마을은 마을단위 국내 최대 매실 군락지로 30만평에 펼쳐진 매화의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이번 행사는 품격 높은 무대행사를 비롯해 휴대폰 사진 액자에 담아 가기, 매화꽃길 스탬프ラリー,

SNS 홍보인증 등 다양한 경품행사(경품: 매실장아찌세트)와 매실음식전시, 매실인절미 시식, 매화머리띠·매화코사지·매실외플 만들기, 매실씨앗 새총뜨기, 매실씨앗 제기차기, 매실호떡 판매 등 매실 관련 행사와 솔방울부엉이 만들기, 화로구이, 캔들만들기, 투호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매화사생대회’는 이

번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로 가족과 함께 매화꽃길을 걸으며 매화를 그리고 액자에 담아갈 수 있다. 상장과 시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인파와 교통 체증에 시달려 봄꽃여행을 주저하는 분이라면 은은한 매화향과 함께 여유로운 봄꽃여행에 적합한 월등향매실마을에서 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길 바란다”며 계월향매실축제를 방문해 주길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군,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호응’



교육생 40명 전원 취득

보성군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면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굴삭기 20명, 지게차 20명 등 총

40명으로 4일간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 전원이 면허를 취득했다.

군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작업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2014년부터 소형 건설기계(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총 240여 명의 교육생이 면허를 취득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계획 인원의 두 배가 넘는 80여 명이 신청하면서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에 농업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

였다. 교육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교육생이 1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 시간은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으로 2일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위탁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형 건설 농기계 교육은 농촌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안전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양시 망덕포구~배알도 잇는 현수교식 해상보도교 착공



광양시는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명소화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해상보도교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는 길이 275m, 폭 3m 규모로 지난 해 8월 준공된 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보도교에 이어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최근 첫 삽을 떴다.

광양의 유일한 섬 배알도와 섬진강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망덕포

구’ 그리고 ‘수변공원 등 낭만이 넘치는 플랫폼이 해상에서 선(線)으로 연결되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크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알도를 중심으로 낭만적인 산책로를 갖춘 수변공원과 운동주진필요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망덕포구의 역사가 이어지며 문화 예술이 흐르는 특별한 해상 로드가 펼쳐진다.

이어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망덕산~배알도수변공원 질라인이 올해 안으로 준공되면 망덕포구 일대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역동적 통합관광벨트로 지역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형순 관광시설장은 “이번 현

수교식 해상인도교가 준공되면 망덕포구~배알도~수변공원이 해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관광자원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망덕포구의 운동주(詩)거리와 배알도 수변공원 등 시(詩)와 낭만이 흐르는 섬진강에서 느리게 사는 삶의 여유와 감성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배알도를 중심으로 운동주와 태인동 김 시식 관련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섬진강 문화예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라인 등 역동적인 체험시설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통합적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권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